

한국 성인의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공격성에 따른 군집 유형별 강간통념수용도*

조 은 혜¹⁾

장 진 이[†]

이 연구는 성인의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공격성에 따른 군집 유형을 탐색하고, 군집 유형별로 강간통념수용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구 및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30대 이상 성인남녀 372명을 대상으로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공격성, 강간통념수용도를 설문조사하였고,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35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군집 1인 ‘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 군집 2인 ‘적응적 성관념 수용형’, 군집 3인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 등 총 3개의 하위군집 유형이 형성되었다. 하위군집 유형별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각 하위군집별로 강간통념수용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검증한 결과, 군집 3인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의 강간통념수용도가 가장 높았고, 군집 1인 ‘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 군집 2인 ‘적응적 성관념 수용형’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대상자가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 하위 유형인지를 평가하고, 각 유형별 특성에 초점화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공격성, 강간통념수용도, 군집분석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1)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졸업

† 교신저자: 장진이,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38430)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Tel: 053-850-3237, E-mail: jjjang21@cu.ac.kr

전 세계 여러 분야로 미투운동(#MeToo)이 확산됨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미 학교, 직장 등에서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전담수사팀이 신설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성폭력상담센터가 각 지역별로 설치되었으나(이선경, 허용희, 박선웅, 2015), 2017년 23,806건, 2018년 23,122건, 2019년 23,212건으로(경찰청, 2021) 신고 건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의도를 의심하며 배척하는 2차 가해행동 논란 역시 지속되고 있는데, 성범죄 피해자의 평소 행실과 사건 당시의 품행 등을 문제시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합리화의 근거를 제공하고(Linda, 1984) 2차 피해자화(second victimization)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효과성을 거두려면 교육 대상이 어떠한 심리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심리내적 특성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 개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는 개인의 심리내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다양한 변인들이 조합되어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탐색하고, 이러한 개인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폭력 인식과 관련된 중요 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강간통념수용도이다. 최근 연구에서 2차 피해자화는 높은 수준의 강

간통념수용도에서 비롯되었다(조은경, 박지선, 2020; 홍주현, 2017). 강간통념(rape myths)이란 강간 범죄와 그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향되고 고정관념적인 신념이나 태도를 가리킨다(박지선, 김정희, 2011; 이석재, 1999). 이러한 강간통념은 남성위주 사고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Field, 1987),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게 되는 논리를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원인을 전가시키도록 만들거나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Jensen & Gutek, 1982; Snyder, 2008). 강간통념수용도란 강간에 대한 편향적 고정관념과 신념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실제로 강간통념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 성범죄와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강간통념수용도는 성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검증되어 오고 있다(홍연주, 이주영, 2019; Burt, 1980; Lee & Choi, 2001). 경험적 연구에서 권위주의가 남성의 성희롱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강간통념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데(Begany & Miburn, 2002), 남성의 경우 강간통념수용도가 높을수록 성행동과 성폭력 경험이 많았고(Lee, 1999), 여성의 경우 강간통념수용도가 성적자기주장을 약화시켜 성폭력 피해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Lee & Lee, 2005). 심지어 강간통념수용도는 성폭행 피해자가 원만하게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초래하였다(Belknap, 2001; Koss, Leonard, Beezley, & Oros, 1981). 그렇다면 이러한 강간통념수용도가 성폭력은 물론이요, 이후 2차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강간통념수용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에 대

한 탐색이긴요한데,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와 성차별주의 같은 성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 강간통념의 원인이었던 만큼(이석재, 최상진, 2001)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재은, 김지현, 2016).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강간통념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냈다(장미정, 조은경, 2004).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에게는 수동적이고 양육적인 특질을 기대하고 남성에게는 공격적이고 경쟁적 특질을 기대하게 함으로써(David & Brannon, 1976) 여성을 보호의 대상이자 사회구조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고착시키고 정당화시켰는데(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실제로 강간통념수용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김재은, 김지현, 2016; 윤병혜, 고재홍, 2006; 홍연주, 이주영, 2019). 이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성에 대한 왜곡된 규범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Wheeler, 2003), 강압적 성행동을 정당화하고(Greendlinger & Byrne, 1987), 피해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을(김복태, 2001)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역할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고 이에 따라 성역할갈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개인이 사회화 과정에서 내면화한 성역할이 자신 혹은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를 성역할 갈등이라고 한다(하정혜, 김지현, 2016; O'Neil, 1982; O'Neil, Helms, Gable, David, & Wrightsman, 1986). 한쪽 성보다는 다른 쪽 성에 더 적절하다고 여기는 가치, 동기 및 행동이 성역할이며(Shaffer, 2005), 생물학적 성에 기초하여 사회가 각 성에 적절하다고 믿는 규정된 특성을 개인이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다(Riegel, 1976). 성역할갈등은 남녀 간에 서로 차이가 있는 만큼 남성의 성역할갈등과 여성의 성역할갈등으로 분리되어 연구되었다(Eisler & Skidmore, 1987; O'Neil et al., 1986).

사회에서 규정하는 과도한 남성성을 내면화하는 남성들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삶을 살게 됨으로써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Kray, Howland, Russell, & Jackman, 2017). 이러한 사회에서 규정하는 성역할에 스스로를 한정시킴으로써 남성은 필요하다면 폭력을 수용하고 공격적으로 되었고(이수연 등, 2012), 강간통념수용도 역시 높았다(박경, 2008; 심정신, 이영숙, 오숙희, 2012). 반면 여성의 경우는 연령대에 따라 성역할에 대한 갈등을 달리 했는데, 20대의 경우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성역할로 내면화하여 신체적 매력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반면(김지현, 2008), 30대의 경우에는 타인의 안녕과 돌봄에 대한 책임을 성역할로 내면화함에 따라 도전적 상황의 극복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신체와 심리적 건강에 위협을 받았다(Efthim, Kenny, & Mahalik, 2001). 예를 들어 독립적인 여성의 경우 새로운 가족의 형성과 독립 추구라는 발달과업에 대한 기대가 복합적 갈등을 낳으면서(채재희, 2014) 결국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심리적 무력감을 가지기도 하였다(최윤정,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별 뿐 아니라 연령 변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데,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성평등 문화에 개방되어 있는 2030세대 역시 개인적인 삶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역할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강간통념수용도가 높을 것이고, 연령 변인의 영향을 받을 것

으로 가정할 수 있다.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성차별주의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성차별이 억압과 증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성차별은 남녀 모두가 옹호하고 지지한다는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제기되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는 여성에 대한 폄하와 멸시뿐 아니라 특정 여성들에 대해서는 숭양과 찬사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로 나뉘는데(Glick & Fiske, 1996, 2001), 적대적 성차별주의(HS: Hostile Sexism)는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권위나 영역을 침범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성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낼 능력이 없고, 따라서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적합하지 않다는 신념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책임감이 강하고 이지적인 남성과 달리 여성은 결단력이 부족하고 감정적이어서 직장 생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예라고 할 수 있다(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 2007; Glick & Fiske, 1996).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BS: Benevolent Sexism)는 전통적 성역할에 부합되는 여성들을 온정적 태도로 대하며, 여성을 보호의 대상이자 사랑받아야 할 대상으로 본다. 이는 여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듯 보이나 그 이면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하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여성을 전통적 여성상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육아나 가사일 등 제한된 역할만이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이러한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공격성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거나 정당화시키도록 하였다(Bohner,

Siebler, & Schmelcher, 2006).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강간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강간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여성관련 정책에는 찬성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이정원, 안상수, 김혜숙, 2009). 경험적 연구에서도 성차별주의를 가질 경우 강간에 대해 더 허용적이고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재홍, 지영단, 2002; Burt, 1980). 특히,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가해자를 동정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상에 대한 편견 또한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최인철, 진정희, 2003). 그렇다면 양가적 성차별주의, 즉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수준에 따라 강간통념수용도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한편, 강간통념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공격성이다. 공격성이란 타인을 향한 처벌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 등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서수균, 권석만, 2002). 이러한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Peggy, 1981) 데이트폭력 가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공격성이 높을수록 폭력에 허용적이고 폭력행동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신지연, 최수미, 2017). 또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허용 수준이 높았는데(손강숙, 정소미, 2016), 이처럼 폭력 수용 수준이 강간통념수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만큼(Burt, 1980; Check, Malamuth, Elias, & Barton,

1985) 공격성을 강간통념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강간통념수용도는 사회문화적으로 부과된 성역할에 따른 성역할갈등,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뿐 아니라 개인 내적 특성으로서 공격성과도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문화적 변인과 개인 내적 변인은 한 개인에게서 다양한 역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아 폭력에 대한 허용 수준이 높을 수도 있지만(손강숙, 정소미, 2016), 공격성 수준이 높아 폭력에 허용적이어서(신지연, 최수미, 2017) 강간통념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같은 사회문화적 변인과 공격성 같은 개인 내적 특성이 한 개인 안에서 서로 다른 프로파일로 조합될 수 있고, 이러한 조합에 따라 고유한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발현되어 강간통념수용도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개별 변인들이 어떻게 강간통념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탐색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관념과 내적 특성의 조합에 따라 발생하는 하위유형을 확인하고, 이러한 하위유형에서 강간통념수용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연구방법으로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이란 변인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하위유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인데 이는 각 집단이 가진 특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군집 유형에 따른 차별적 개입을 위한 효과적인 상담

목표를 수립하도록 한다(박현주, 정대용, 2010). 그렇다면 하위유형을 탐색함으로써 이 유형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예방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집분석을 통해 사회문화적 관념과 내적 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강간통념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면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특성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진호와 강혜자(2005)에 따르면 강간에 대한 통념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성별과 직업을 초월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은경과 박지선(2020)에 따르면 연령과 성별은 성차별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보다 남성이 성차별적 태도를 더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차별적 태도를 더 수용하였다. 남성의 성차별 수준이 여성보다 높았고, 특히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오주령, 박지선, 2019; 홍영은, 박지선, 2018). 실제로 김나은과 박지선(2021)에 따르면 남성은 과시적이고 권위적인 성향에서 여성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이러한 성향이 성차별적 태도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강간통념에서 성차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달랐던 만큼(이선경 등, 2015) 강간통념수용도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우리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연령,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각 하위유형에서 나타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성역할갈등, 양가

적 성차별주의, 공격성을 군집변인으로 설정하여 어떠한 자연발생적인 하위군집 유형이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하위군집 유형에 따라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강간통념수용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공격성, 강간통념수용도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둘째,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공격성 등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하위군집 유형이 존재하는가? 셋째,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공격성 등의 조합에 따라 형성된 다양한 하위군집 유형의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넷째,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공격성에 따른 하위군집 유형 간에 강간통념수용도에서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18년 3월 대구 및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30대 이상의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대학원, 병원, 중소기업, 관공서 등에 오프라인 설문과 구글 온라인설문지를 이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지의 경우 연구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한해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설문 시작 전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과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온라인 설문지 응답자는 121명(33%), 오프라인 설문지 응답자는 251명(67%)이었다. 각각

의 회수율은 92%, 94%였고,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는 1천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급하였다. 본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372명이었고, 그 중 중복 응답 및 미응답 등의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최종 35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성별은 여성이 193명(55.1%), 남성이 157명(44.9%)이었다. 연령은 30대가 144명(41.1%), 40대가 94명(26.9%), 50대가 99명(28.3%), 60대가 13명(3.7%)이었다. 결혼 여부로는 미혼이 82명(23.4%), 기혼이 268명(76.6%)으로 상당수가 기혼이었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 6명(1.7%), 고등학교졸업 78명(22.3%), 전문대학졸업 69명(19.7%), 대학교 졸업 133명(38%), 대학원졸업 64명(18.3%)이었다.

측정도구

강간통념수용도

강간통념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urt (1980)가 개발하고 이석재(1999)가 변안 및 수정한 강간통념수용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 문항으로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피해자의 성격,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 조작,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한다. 문항의 예를 들면, ‘강간을 보고하는 많은 여성은 상대에 대한 분노와 보복하려는 동기로 거짓말을 한다.’ ‘여자에 비해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해야 한다.’ 등이다. 이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남성 성역할갈등

남성 성역할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O'Neil 등(1986)이 개발한 성역할갈등 척도와 Eisler와 Skidmore(1987)의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 등을 한국인의 경험을 반영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과 김진아(2012)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7문항으로 남성우월, 일가정 양립 갈등, 감정표현 억제, 성공권력 경쟁,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가장 의무감 등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6점)까지 6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한다. 이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9였다.

여성 성역할갈등

여성 성역할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지현(2008)의 FGRC(S(Fe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 for Female College students)를 참고하여 하정혜와 김지현(2016)이 구성한 한국 여성 성역할갈등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이며, 양육과 가사에 대한 과중한 책임, 타인을 우선 돌봄, 매력 없음에 대한 두려움,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주장 억제 등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6점)까지 6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한다. 이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1이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양가적 성차별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Glick과 Fiske(1996; 2001)의 양가적 성차별 태도 척도를 근거로 안상수 등(2005)이 개발한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D)를 사용하였다. 총 36문항으로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측정하는 문항 18개의 문항과, 온정적 성차별을 측정하는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한다. 이 연구에서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는 .94였고,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93,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93이었다.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를 근거로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타당화한 한국형 공격성 질문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응답한다. 이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4였다.

자료분석

이 연구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우선 각 변인별 신뢰도 검증은 위하여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검토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 변인값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이론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특성을 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법으로(김명선, 하은혜, 오경자, 2014) 자료에 기반하는(data-driven) 탐색적인 접근이다. 1단계에서는 대표적인 위계

적 군집 방법인 Wards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위계적 군집 방법이란 비교적 차이가 덜한 값끼리 차례대로 묶어서 군집화 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군집의 수와 각 군집의 초기 중심점을 결정하였다(김기영, 전명식, 1991). 2단계에서는 비위계적 군집방법인 K-means 방법으로 각 군집의 중심점을 초기 시작점으로 투입하여 그 중심점을 향해 각 사례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각 군집별 사례를 결정하였다. 이 방법은 1단계에서 결정된 군집에 정해진 판단기준을 통해 군집을 구분하는 방식이다(손건태, 1998). 각 군집 유형 간의 인구통계학적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토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각 집단이 강간통념수용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간 차이가 어떠한 군집 간에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 성별 차이

이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에서 성차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강간통념수용도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역할갈등($t=-11.2, p<.01$)에서는 여성($M=3.61$)이 남성($M=2.89$)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공격성($t=-1.40, p<.05$)에서는 여성($M=2.41$)이 남성($M=2.34$)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1과 같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이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수들의 상관을 살펴보면, 성역할갈등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주의($r=.16, p<.01$), 온정적 성차별주의($r=.18, p<.01$), 공격성($r=.19, p<.01$), 강간통념수용도($r=.25,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공격성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주의($r=.28, p<.01$), 온정적 성차별주의($r=.19, p<.01$), 강간통념수용도($r=.29,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

표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비교 분석

		남(n=157)		여(n=193)		<i>t</i>	<i>df</i>
		<i>M</i>	<i>SD</i>	<i>M</i>	<i>SD</i>		
1	성역할갈등	2.89	.65	3.61	.54	-11.2**	348
2	적대적 성차별주의	2.50	.71	2.21	.68	3.86	348
3	온정적 성차별주의	3.09	.71	2.84	.71	3.20	348
4	공격성	2.34	.51	2.41	.41	-1.40*	348
5	강간통념수용도	3.00	.92	3.03	.96	-.33	348

주. $n=350$ ** $p<.01$, * $p<.05$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

		1	2	3	4	5
1	성역할갈등	1				
2	적대적 성차별주의	.16**	1			
3	온정적 성차별주의	.18**	.34**	1		
4	공격성	.19**	.28**	.19**	1	
5	강간통념수용도	.25**	.54**	.32**	.29**	1

** $p < .01$

관을 보였다. 또한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r = .34, p < .01$)와 강간통념수용도($r = .54, p < .01$)와 중간 수준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강간통념수용도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중간 수준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32, p < .01$). 종합적으로 강간통념수용도는 성역할갈등($r = .25, p < .01$), 적대적 성차별주의($r = .54, p < .01$), 온정적 성차별주의($r = .32, p < .01$), 공격성($r = .29, p < .01$)의 주요 변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2와 같다.

군집분석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공격성을

군집 변인으로 하여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을 때가 각 군집의 차별적 특성이 가장 두드러졌다. 따라서 이 연구에 참여한 성인들의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공격성 등 군집 변인들의 평균 점수를 초기 중심점(speed points)으로 설정하여 2단계에서는 K-means 분석을 통해 각 참여자를 해당 군집에 최종 분류하였다. 군집 1은 94명, 군집 2는 141명, 군집 3은 115명으로 군집 2에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포함되었다. 각 군집의 양상을 파악하고 군집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각 군집 변인들의 군집별 점수를 표준화하였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표 3과 같다.

군집 1은 성역할갈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높고 공격성이 낮아 비공격적인 성고정관

표 3. 최종 군집별 중심점

군집유형	군집 1	군집 2	군집 3
	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 ($n=94$)	적응적 성관념 수용형 ($n=141$)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 ($n=115$)
성역할갈등	.88	-.54	-.06
적대적 성차별주의	.29	-.71	.63
온정적 성차별주의	.47	-.74	.52
공격성	-.34	-.48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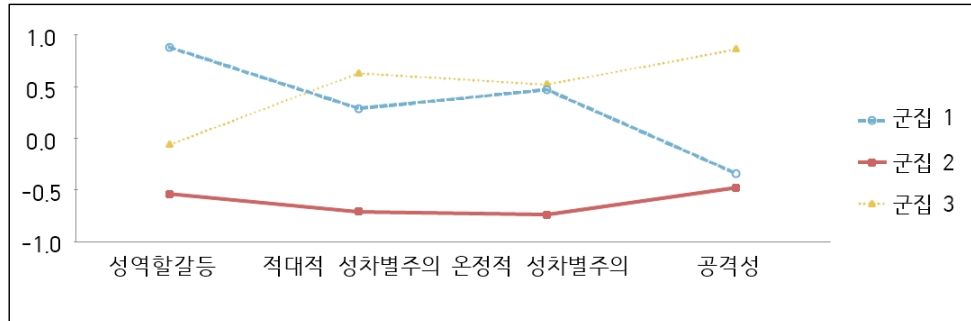


그림 1. 성역할갈등, 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공격성에 따른 군집 프로파일(중심점)

남 갈등형으로 명명하였다. 성역할갈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모두 성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Berk, 2009) 성고정관념을 군집명에 명시하였다. 군집 2의 경우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공격성이 모두 낮은 집단으로 적응적 성관념 수용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성고정관념보다는 성관념이라는 표현을 선택하였는데, 고정관념이 특정 개인의 독특한 개성이나 능력을 무시하고 단순히 그 개인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란 이유만으로 그의 개성이나 특성, 능력을 특정 범주로 귀속시키는 관념이나 기대를 의미하는 반면(곽호안, 박창호, 이태연, 김문수, 진영선, 2008), 관념이란 어떤 일에 대한 견해나 생각을 가리킨다. 군집 2의 경우 연령이 낮거나 학력이 높은 특성을 보였는데, 성고정관념을 수용하기보다 적응적으로 성관념을 받아들이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군집 3의 경우,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으로 명명하였는데, 군집 3은 공격성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양가적 성차별주의 수준도 가장 높았고 성역할갈등은 평균 수준이었다. 순응이란 환경에 적응하여 익숙해지거나 체계나 명령 따위에 적응하여 따른다는 것으로 군집 3의 경우 사회적으로 만연한 성고정관념에 대해 순응하여 이에 대

해 갈등하지 않고 따르며 성차별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집 3은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으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군집 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

각 군집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 157명 가운데 군집 3(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에 속한 경우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집 2(적응적 성관념 수용형) 67명, 군집 1(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 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193명 가운데 가장 많은 여성이 속한 군집은 군집 2(적응적 성관념 순응형)로 74명이었으며, 군집 1(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 72명, 군집 3(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 47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군집 3(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반면, 여성은 군집 2(적응적 성관념 순응형)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는 군집 2(적응적 성관념 수용형)에서 74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40대 역시 39명으로 군집 2(적응적 성관념 수용형)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반면, 50대는 군집 3(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에 43

표 4. 군집별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결혼 여부 분포

			군집 1 (n=94)	군집 2 (n=127)	군집 3 (n=69)	χ^2	df
1	성별	남(n=157)	22(14%)	67(42.7%)	68(43.4%)	27.32***	2
		여(n=193)	72(37.3%)	74(38.3%)	47(24.4%)		
2	연령	30대(n=144)	32(22.2%)	74(51.4%)	38(26.4%)	27.74***	6
		40대(n=94)	24(25.5%)	39(41.5%)	31(30.9%)		
		50대(n=99)	29(29.3%)	27(27.3%)	43(43.4%)		
		60대(n=13)	9(69.2%)	1(7.7%)	3(23.1%)		
3	교육수준	중졸(n=6)	0(0%)	1(16.7%)	5(83.3%)	24.62**	8
		고졸(n=78)	23(29.5%)	20(25.6%)	35(44.9%)		
		전문대졸(n=69)	23(33.3%)	23(33.3%)	23(33.3%)		
		대졸(n=133)	32(24.1%)	63(47.4%)	38(28.6%)		
		대학원졸업(n=64)	16(25.0%)	34(53.1%)	14(21.9%)		
4	결혼	미혼(n=82)	11(13.4%)	47(57.3%)	24(29.3%)	15.34***	8
		기혼(n=268)	83(31.0%)	94(35.1%)	91(34.0%)		

** $p < .01$, *** $p < .001$,

군집 1 = 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 군집 2 = 적응적 성관념 수용형, 군집 3 =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

명이 포함되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교육 수준별로는 중, 고등학교 졸업자가 군집 3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반면,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자는 군집 2(적응적 성관념 수용형)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군집 유형들 간의 인구통계학적 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결혼 여부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와 같다.

군집별 강간통념수용도 차이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및 공격성

을 조합하여 형성된 세 개의 군집들 사이에 강간통념수용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집별 강간통념수용도 차이가 유의하였다. Scheffe 검증을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강간통념수용도는 군집 3(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이 군집 1(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군집 1(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이 군집 2(적응적 성관념 수용형)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41.27$, $p < .001$). 구체적인 결과는 표 5, 그림 2와 같다.

표 5. 군집별 강간통념수용도의 평균 차이

구분	군집1 (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	군집2 (적응적 성관념 수용형)	군집3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	F	df	Scheffe
	M(SD)	M(SD)	M(SD)			
강간통념수용도	3.19(.88)	2.53(.76)	3.48(.93)	41.27***	2	b<a<c

*** $p < .001$, Scheffe: 군집1=a, 군집2=b, 군집3=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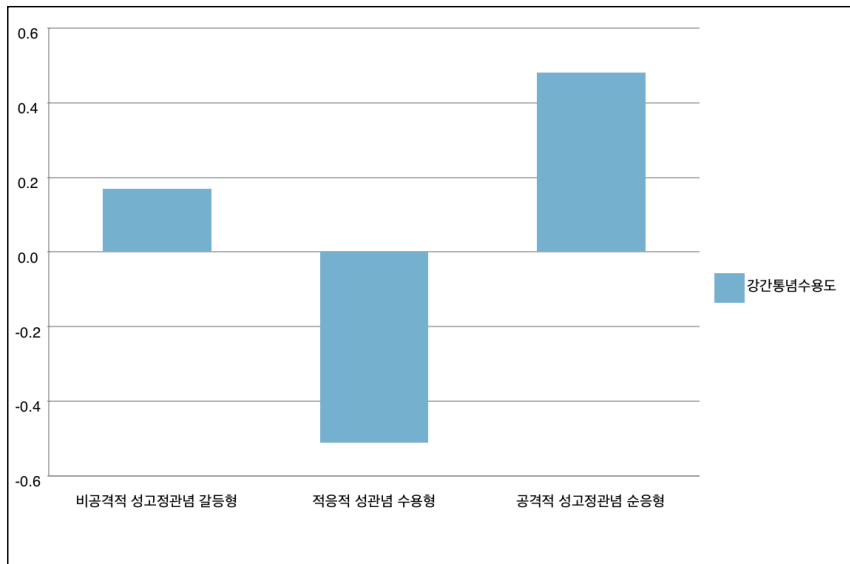


그림 2. 군집별 강간통념수용도의 차이(표준점수)

논 의

이 연구의 목적은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경험적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였고, 이들 변인의 조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하위유형을 찾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역할갈등, 양가

적 성차별주의, 공격성의 조합에 따라 발생되는 하위유형을 탐색하고, 이러한 하위유형에서 강간통념수용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 경북지역 30대 이상 성인남녀 3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35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역할갈등과 공격성에 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양가적 성차별주의, 강간통념수용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표준편차가 작지 않았던 만큼 양가적 성차별주의, 강간통념수용도에서 응답자들이 다양한 태도를 보인 것이 평균 차이를 축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또, 특징적인 것은 여성의 공격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강간통념수용도의 경우 7점 척도에서 남녀 각각 3.00점, 3.03점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강간통념수용도가 낮다는 선행연구(이건호, 강혜자, 2005; 이석재, 최상진, 2001; 이선경 등, 2015)와 일치하지 않으며, 공격성을 억압해야 하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경험하는 공격성 수준이 더 높았다는 선행연구와도(Kopper, 1996)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선행연구와 다른 이러한 결과는 남성 지배적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데, 최근 경험적 연구 결과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이나영, 2018) 보고되었다. 과거와 달리 여성이 자신의 공격성을 더 인식하고 표현하게 된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표본의 특성과 다양한 매개변인이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여성의 공격성 수준에 영향 미치는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둘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역할갈등, 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공격성, 강간통념수용도 모두 서로 간에 유의미한 정적관련성을 보였다.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강간통념수용도가 높아지며(Glick & Fiske, 2001),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역할갈등은 성차별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김지현, 200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성역할갈등과 강간통념수용도 간의 관련성이 가장 컸는데, 남녀 각각의 성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남성의 폭력성과 여성의

수동성이 정당화되며 강간통념수용도 역시 높고(이수연 등, 2012) 사회에서 규정하는 성역할에 스스로를 한정시킴으로써 남성은 필요하다면 폭력을 수용하고 공격적으로 되었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수연 등, 2012)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규정지어지는 성역할이 한 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관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강간통념수용도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공격성 등의 관련성이 검증된 만큼 이 특성들을 주요 주제로 한 예방교육과 상담적 개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공격성의 조합에 따라 어떠한 하위집단 유형이 형성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세 개의 하위군집이 형성되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군집 2는 ‘적응적 성관념 수용형’으로 성역할갈등, 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공격성이 모두 낮은 유형이었다.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에 대해 허용적이었고(손강숙, 정소미, 2016), 청소년의 공격성이 성폭력 가해행동에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을 고려한다면(이진석, 김재엽, 황선익, 2018), 이 유형은 성역할갈등이나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덜 경험하면서 공격성 수준까지 낮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남녀 성에 대한 견해나 생각인 성관념이 적응적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이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는 것은 남성 지배적인 문화에 대한 일반성인의 인식 개선이 반영된 것으로(이나영, 2018) 가정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군집 3은 ‘공격적 성고정관념 수용형’으로 성역할갈등은 평균보다 낮으나 적

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공격성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이다. 특히 공격성 수준과 적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은 모든 유형 가운데 가장 높아 공격적인 특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인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없지만,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공격성 간에 정적 관련성이 나타난 만큼 이들 두 변인의 관련성 혹은 인과성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군집 1은 ‘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으로 성역할갈등, 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평균보다 높았으나 공격성은 평균보다 낮았다. 이 유형의 경우 성역할갈등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유형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자신의 성역할에 대해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각 군집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교육 수준, 결혼 여부, 성별, 연령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군집 2인 ‘적응적 성관념 수용형’의 경우 30대의 51.4%에 해당하는 74명과 40대의 41.5%를 차지하는 39명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많이 속해 있었으며 대학교 졸업자 47.4%, 대학원 졸업자 53.1%로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음을 보여 주는 것인데, 이 하위 군집 형성에 연령과 학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군집 1인 ‘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의 경우 여성이 37.3%를 차지하고 남성은 14%로 가장 적었던 반면, 군집 3인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의 경우 43.4%로 가장 남성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24.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의 경우 50대가 43.4%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였으며, 학력에서는 중학교 졸업 83.3%, 고등학교 졸업 44.9%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교육 수준이 낮았다. ‘적응적 성관념 수용형’과 대조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하위군집 유형별로 강간통념수용도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군집 3인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군집 1인 ‘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 군집 2인 ‘적응적 성관념 수용형’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변인으로서 성역할갈등(손강숙, 정소미, 2016; 심정신 등, 2012; 하정혜, 김지현, 2016), 양가적 성차별주의(김재은, 김지현, 2016; 이정원 등, 2009; Bohner et al., 2006), 공격성(신지연, 최수미, 2017) 각각이 강간통념수용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변인들의 조합으로 형성된 하위유형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공격성 수준이 높은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 유형에서 강간통념수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지만, 이 유형에서 특히 공격성 수준이 높았던 만큼 공격성이 강간통념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특성이 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양가적성차별주의 등 사회문화적 변인들과 공격성, 강간통념수용도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하위유형별로 강간통념수용도에서 차이가 있었던 만큼 성폭력 예방 및 상담적 개입에서는 대상이 어떠한 하위유형에 속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의 경우 심리사회 변인으로서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뿐 아니라 개인 내적 변인으로서 공격성에 초점화된 개입이 구안될 필요가 있다. 공격성의

경우 개별 개인에 초점화된 심층적인 상담적 개입도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인데,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유형별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 수준이 달랐던 만큼 각 하위유형별로 특화된 교육에서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역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30대 이상의 기혼여성의 경우 성차별에 민감하지 못하였고, 20대 미혼여성의 경우 성차별에 민감하였다. 또 남성의 경우 성차별과 결혼 유무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유주연, 안현의, 2020).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듯 연령과 결혼유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성역할갈등의 경우 양육과 가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반면, 20대 여성의 경우 성적희생자가 될 수도 있거나 사회적 여성성을 벗어날 경우 매력없는 여성이 될 수 있다는 양가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김지현, 2008; 하정혜, 김지현, 2012). 이는 20대 여성과 30대 이상의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성역할갈등을 다룰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인데, 이 연구는 30대 이상 60대 이하의 연령대를 연구대상으로 한 만큼 20대 여성의 성역할갈등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대상이 대구 경북이라는 특정 지역의 성인으로 국한되었는데, 군집분석에서는 표본의 특성이 중요한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군집 형성의 타당성과 일반화 가

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집단 분류라는 점에서는 개념적으로 군집분석과 유사하지만, 확률이론을 통해 집단 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분류의 정확성이 높고,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에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권재기, 2011) 잠재집단분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양한 장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일 것이다. 이제 이러한 교육은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하면서도 영역특수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성역할갈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등뿐 아니라 공격성 등의 개인의 고유한 심리내적 특성 등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고 이들 변인들에 대한 개입에 초점화된 심리교육 혹은 상담 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군집에 맞는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자면 첫째, ‘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의 경우는 성역할갈등 수준이 가장 높은 특성을 보였던 만큼 이 하위 유형의 경우 성역할갈등 수준을 낮추는 것에 초점화된 개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성역할과 관련한 고정관념 등을 점검하고 이러한 고정관념들을 인지치료 등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바꿈으로써 강간통념수용도를 낮춘다면 궁극적으로 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의 경우 공격성 수준이 높았던 만큼 공격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인지각수성에 대한 강조 등으로 강간통념수용도에서 변화가 예상되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척도 개발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도 관련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이석재 (1999) 척도를 문항에 대한 안면타당도만을 거쳐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추후에는 최근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척도 개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척도 개발은 관련 연구를 촉진할 것이며, 이러한 경험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타당하고 효과적인 예방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학교와 직장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대상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일회성인 경우가 많다. 특히, 30대 이상 성인의 경우 성차별주의 등이 고착화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일회적인 교육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기초, 심화과정 등 세분화하여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지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강간통념수용도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다양한 하위 유형을 발견하고, 교육 대상자가 어떠한 유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후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경찰청 (2021). 범죄통계. 2021, 5, 16 인출.
고재홍, 지영단 (2002).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과 잘못된 강간통념 수용간의 매개변인과

조정변인의 역할. 청소년상담연구, 10(1), 87-105.
곽호안, 박창호, 이태연, 김문수, 진영선 (2008). 실험심리학 용어사전. 시그마프레스.
권재기 (2011).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발달양상과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잠재계층 성장분석(LCGA), 다집단 성장혼합모형(GMM)을 이용한 종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4, 95-126.
김기영, 전명식 (1991). 두 독립 모집단의 공분산 행렬에 대한 붓스트랩 추론. 한국통계학회 응용통계연구, 4(1), 1-11.
김나은, 박지선 (2021). 성별에 따른 자기애가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법, 12(3), 279-300.
김명선, 하은혜, 오경자 (2014). 심리장애 진단아동의 K-CBCL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군집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4), 675-693.
김명소, 이은진 (2008). 한국 남성의 페미니즘 성향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차이 및 페미니즘 성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1), 1-18.
김복태 (2001).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공감능력 및 성폭력 사건 지각의 차이. 사회과학연구, 27, 249-268.
김정인, 도경수, 이재호 (2003). 강간통념과 성역할 태도는 공격적 성행동을 예측하는가?.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3(1), 229-230.
김재은, 김지현 (2016).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 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상담학연구, 17(1), 187-205.

- 김지현 (2008). 여성성역할갈등척도 개발 및 타당화 -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9(4), 1-22.
- 박경 (2008).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간의 관계: 공감 및 강간통념의 중재 및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519-536.
- 박지선, 김정희 (201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가해자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19(2), 77-96.
- 박현주, 정대용 (2010). 불안정 애착과 심리적 고통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와 자존감의 매개효과: 성차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381-401.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 손강숙, 정소미 (2016).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3), 441-457.
- 손건태 (1998). 기상 및 환경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적 기법. *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s*, 34(3), 497-504.
- 신지연, 최수미 (2017). 거부민감성, 비대칭 패러다임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533-549.
- 심정신, 이영숙, 오숙희 (2012).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 및 성폭력 허용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 18(2), 117-125.
-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39-66.
-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 (2007).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
- 오주령, 박지선 (2019).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0(1), 47-65.
- 유주연, 안현의 (2020). 성인초기 남녀의 성차별 메타-인식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유형별 성역할갈등, 이성과의 거리감,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4), 351-378.
- 윤병해, 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1-19.
- 이건호, 강혜자 (2005). 강간통념수용도, 성역할 태도 및 음란물 접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3), 23-40.
- 이나영 (2018).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 *월간복지동향*, 234, 5-12.
- 이나영 (2018). ‘미투 운동’을 대하는 언론의 자세. *방송기자*, 41, 13-15.
- 이명신 (2014). 성희롱의 재정의: 남녀대학생의 강간통념, 성희롱 인식, 성적 괴롭힘 행동을 중심으로 경험적 재구성. *젠더와 문화*, 7(1), 43-97.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상담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13(2), 131-148.

- 이석재, 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력사건 지각. 한국상담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15(1), 97-116.
- 이선경, 허용희, 박선웅 (2015). 성별과 나이에 따른 성폭력 인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29(1), 65-81.
-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김진아 (2012).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여성연구, 82(1), 5-33.
- 이정원, 안상수, 김혜숙 (2009).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관련 정책 및 강간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2009(1), 208-209.
- 이진석, 김재엽, 황선익 (2018).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음란물 접촉,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공격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연구, 20(1), 187-210.
- 장미정, 조은경 (2004).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2차 피해 유발 질문의 사용과 수사관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강간통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4(2), 129-137.
- 제연화, 심은정 (2015). 2/30대 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지각된 사회의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7(4), 931-952.
- 정찬영, 김현정, 김태경, 박상희 (2020).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인식: 주체성과 판단자 성별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3), 167-194.
- 조은경, 박지선 (2020). 강간과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비난의 차이: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대인 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4(1), 45-66.
- 채재희 (2014). 중년 미혼여성의 삶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결혼관을 중심으로. 통합치료연구, 6(2), 5-28.
- 최윤정 (2011). 대졸기혼직장 여성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다중역할 현실성에 따른 집단 분류와 일-가족 갈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2), 219-241.
- 최윤호, 정남운 (2020). 완벽주의 군집유형 분류: 높은 기준이 부여되는 원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523-545.
- 최인철, 김정희 (2003).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성희롱 사건의 해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2003(1), 409-410.
- 하정혜, 김지현 (2012). 한국 중년여성 성역할 갈등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3(6), 2987-3007.
- 하정혜, 김지현 (2016).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갈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023-1046.
-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3). 성정체성,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그리고 집단자존심이 남녀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19-33.
- 홍연주, 이주영 (2019). 성적 자기애가 20대 남녀의 성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4), 4853-504.

- 홍영은, 박지선 (2018).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인식: 성별과 양가적 차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3), 1-18.
- 홍주현 (2017).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 (hierarchy)에 따른 매체가시성(media visibility)의 양과 질 네트워크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8), 520-534.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Addison-Wesley.
- Bartol, C. R., & Bartol, A. M. (2005). *Criminal behavior: A psycho-social approach*. New Jersey: Person Education.
- Begany, J. J., & Miburn, M. A. (2002). Psychological predictors of sexual harassment: Authoritarianism, hostile sexism, and rape myth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3, 119-126
- Berk, L. E. (2009). *Child Development*. Boston: Person.
- Belknap, J. E. (2001). *The invisible Woman: Gender, Crime, and Justice*. Belmont, CA: Wadsworth Group.
- Bohner, G., Siebler, F., & Schmelcher, J. (2006). Social norms and the likelihood of raping: Perceived rape myth acceptance of others affects men's rape procliv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286-297.
- Burt, M.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17-230.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Brownmiller, S. (1975). *Against our will*.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Check, J. V. P., Malamuth, N. M., Elias, B., & Barton, S. A. (1985). On hostile ground. *Psychology Today*, 56-61.
- David D., & Brannon, R. (1976). The male sex role: Our culture's blue print of manhood, and what it's done for us lately. In David, D. & Brannon, R.(Eds), *The forty-nine percent majority: The male sex role*(pp. 1-45).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Efthim, P. W., Kenny, M. E., & Mahalik, J. R. (2001). Gender role stress in relation to shame, guilt, and externaliz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9, 430-438.
- Eisler, R. M., & Skidmore, J. R. (1987).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Scale development and component factors in the appraisal of stressful situation. *Behavior modification*, 11(2), 123-136.
- Field, H. S. (1987). Attitudes toward rape: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e, rapists, crisis counselors, and citize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56-179.
- Greendlinger, B., & Byrne, D. (1987). Coercive sexual fantasies of college men as predictors of self-reported likelihood to rape and over sexual aggression. *Journal of Sex Research*, 23, 1-11.
- Groth, N. (1979). *Men who rape*. New York: Plenum.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91-512
- Glick, P., & Fiske, S. T. (2001). An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s complementary

- justifications for gender inequality. *American Psychologist*, 56(2), 109-118.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 & Yarnold P. R.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Janoff-Bulman, R. (1979). Characterological versus behavioral self-blame: Inquiries into depression and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798-1809.
- Jensen, I. W., & Gutek, B. A. (1982). Attributions and assignment of responsibility in sexual harass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38(4), 121-136.
- Kopper, B. A. (1996). Gender, gender identity, rape myth acceptance, and time of initial resistance on the perception of acquaintance rape blame and unavoidability. *Sex Roles*, 34, 81-93.
- Koss, M. P., Leonard, K. E., Beezley, D. A., & Oros, C. J. (1981). Personality and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sexually aggressive me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Los Angeles*.
- Lambert, A. J., & Raichle, K. (2000). The role of political ideology in mediating judgments of blame in rape victims and their assailants: A test of the just world, personal responsibility and legitimization hypothe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7), 853-863.
- Kray, L. J., Howland, L., Russell, A. G., & Jackman, L. M. (2017). The Effects of Implicit Gender Role Theories on Gender System Justification: Fixed Beliefs Strengthen Masculinity to Preserve the Status Quo.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2(1), 98-115.
- Lee, J. Y., & Lee, E. S. (2005). The explanatory models of dating violence and victimization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Counseling Psychology*, 17(2), 419-436.
- Lee, S. J., & Choi, S. J. (2001). Rape myths acceptance and violent sexual behaviors. *Korean Social Personal Psychology*, 15(1), 97-116.
- Lee, S. J. (1999). Development of a rape myths scale. *Korean Social Personal Psychology*, 12(2), 131-148.
- Williams, L. S. (1984). The Classic Rape: When Do Victims Report? *Social Problems*, 31(4), 459-467.
- David, L. (1991). Sexual aggression, masculinity, and fathers.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16(2), 238-262.
- O'Neil, J. M. (1982). Patterns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train: Sexism and fear of femininity in men's lives.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60, 203-210.
- O'Neil, J. M., Helms, B. J., Gable, R. R., David, L., & Wrightsman, L. S. (1986). Gender-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 14, 335-350.
- Peggy, S. (1981). The Social-cultural context of rape: A cross cultural study. *Journal of Social Issues*, 37(4), 8-18.
- Pleck, J. H. (1981). *The myth of masculinity*. MA: MIT press.
- Pleck, J. H. (1995). The gender role strain paradigm: An update. In R. F. Levent., & W. S. Pollack(Eds). *A New Psychology of*

- Men*(pp. 11- 32). Basic Books/Hachette Book Group.
- Riegel, K. F. (1976). The dialectics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y*, 31, 689-700.
- Rudman, L. A., & Phelan, J. E. (2008). Backlash effects for disconfirming gender stereotypes in organization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8, 61-79.
- Snyder, E. R. (2008). *The female to make rape myths scale: Initial scale development*, Ph. D. Dissertation. Ball State University.
- Wheeler, J. G. (2003). The Abstinence Violation Effect in a sample of incarcerated sexual offenders: A reconsideration of the terms Lapse and Relapse.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ection B: *The Sciences & Engineering*, 63(8-B), 39-46
- White, J. W., & Kowalske, R. M. (1994). Deconstructing the myth of the nonaggressive woman: A feminist analysi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4), 487-508.

논문 투고일 : 2021. 11. 17

1 차 심사일 : 2021. 11. 30

게재 확정일 : 2022. 01. 28

The Cluster of Adults' Gender Role Conflict, Ambivalent Sexism and Aggression and Their Differences in Acceptance of Rape Myths

Eun Hye Cho

Jin Yi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natural groupings among adults based on gender role conflict, ambivalent sexism and aggression, and find differences in their acceptance of rape myths. 372 male and female adults in the Daegu and Gyeongsang province were surveyed and 350 were analyzed on their gender role conflict, ambivalent sexism, aggression and acceptance of rape myths. The cluster analysis divided participants into sub-groups such as 'unaggressive but conflicted about gender stereotypes', 'receptive to adaptive gender notions' and 'compliant to aggressive gender stereotypes'. The sub-groups had differing levels of gender, age and educat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acceptance of rape myths among these groups, Post-hoc testing showed that the 'compliant to aggressive gender stereotype' subgroup showed the highest level of acceptance of rape myths, following by 'unaggressive but with gender stereotype conflicts' and 'receptive of adaptive gender notions'. Finally, needs for assess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ir subgroup types and developing psychoeducational programs focused on the subgroup characteristics were addressed. Then,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gender role conflict, ambivalent sexism, aggression, the acceptance of rape myths, Cluster analysis